

김승옥 소설의 대화적 담론성과 정치적 (무)의식

서 은 혜*

요약

김승옥 소설의 문체적 특징은 감각적 이미지의 혼용, 연상과 환유의 사용 등 통사론적 차원에서 주로 연구되었으며, 한글세대로서의 뛰어난 문장 감각이라는 작가 개인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요소라는 평가로 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63년에서 69년 사이 김승옥 소설들, 특히 『역사(力士)』(1963), 『싸게 사들이기』(1964), 『서울, 1964년 겨울』(1965), 『다산성』(1966), 『내가 흠친 여름』(1967), 『야행』(1969)에서 당시 정권이나 대학사회의 언어들을 차용하고 서사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세태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국 근대화의 주체로서 청년을 호명하며 이루어진 생산-창조 담론, '데모'를 혐오하며 학생사회를 통제하던 지배담론의 언술, 4·19와 5·16의 권력적 역학관계를 둘러싼 기성세대의 다양한 혁명론, 지도자론, 국익을 위한 파병을 정당화한 베트남 전쟁 관련 담론 등 60년대를 이루는 굵직한 사회사적 사건, 그와 관련된 담론들이 서사 안에서 재맥락화되며 새로운 정치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지점을 살펴보았다.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시대적 징후 혹은 정치성은, 한국사회 전체가 개발을 지상과제로 삼으며 세속적 성공만을 유일한 삶의 가치로 여기게 되는 풍조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우회적 방식으로 이에 문제를 제기하고 균열을 낸다는 점에 있다.

주제어: 김승옥, 다성성, 4·19, 발화, 환유, 패러디, 혼성모방, 베트남전쟁,

* 홍익대학교 초빙대우교수

목차

1. 서론
2. 생산 담론에 대한 혼성 구분과 패러디적 효과
3. 의미의 환유/은유적 교차와 체제의 억압성 암시
4. 혼성모방(pastiche)과 소시민적 삶에 대한 자조
5. 결론

1. 서론

김승옥 소설은 ‘4·19 세대’로서의 의식¹⁾, ‘감수성의 혁명’이라는 수사에 기반한 새로운 언어실험과 문체적 특징에 대한 연구²⁾, 196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의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된성을 규명한 연구³⁾로 크게 나뉘볼 수 있다.

기존 연구사에서 ‘4·19세대’, 혹은 ‘한글세대’로서의 특징이 부각되면서 부수적으로 생긴 현상은, 김승옥 소설 문체를 개인의 뛰어난 문학적 자질의 결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정형화되었다는 것이다.

- 1) 김주연, 『새 시대 문학의 성립: 인식의 출발로서의 60년대』, 『김주연 평론문학선』, 문학사상사, 1992, 13-48면. ;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424-430면. ;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사회와 윤리』, 일지사, 1974, 383-402면. 김승옥 소설에 대한 당대비평적 성격이 강한 이와 같은 관점은 김승옥 소설의 ‘자기세계’ 연구 계열로 이어져 왔다.
- 2) 대표적인 비평 및 연구로는 유종호의 『감수성의 혁명』,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424-430면 ; 김명석, 『김승옥 소설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2004, 36-62면 참조
- 3) 차미령, 『김승옥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환상과 현실을 희한하게 조화시키는 허구 조성 능력, 기지가 번뜩이는 분석력, 만화경같이 다채로운 의식의 요술”이 의존하는 “참신한 언어재능”을 새로운 감수성의 핵심으로 보는 글⁴⁾, “중문과 복문의 이중적 사용”,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의 결합”이라는 특징에 대한 언급⁵⁾ 등 한글의 특이한 ‘조탁’ 방식에 대한 비평적 언급들이 문체 연구의 기본틀이 되어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점에서 김승옥 소설의 문체 연구는 곧 ‘문장’의 조형방식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이 문장의 연결에 의한 의미의 생성이 소설이라는 장르적 형성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즉 문체와 형식 간의 매개, 또 형식과 내용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한 유기적인 탐구는 아직 까지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⁶⁾ 문학 텍스트의 내용이 선재하고 이를 ‘담는’ 도구로서의 형식이 존재한다는 고전적인 재현(representation)의 논리를 벗어난 지점에 언어의 물질성을 보여주는 김승옥 소설이 놓인다는 점⁷⁾, 표현의 특정한 양태를 통해서만 현실이 파악되고 그와 관련된 서사적 내용이 특정한 방식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린다면⁸⁾, 이와 같은 연구사적 경향은 새롭

4) 유중호, 앞의 글, 425면.

5) 김현, 앞의 글, 389-390면.

6) 이러한 시각은 “문체와 사회의 변증법”적 차원을 김승옥 소설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최인자의 관점과도 연결되어 있다. : 최인자, 『김승옥 소설 문체의 사회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10집,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361면.

7) 서영채, 『한글세대의 문학 언어의 특징-김승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 59집, 대동문화연구소, 2007, 135-145면.

8) 프레드릭 제임슨은 루카치적 의미의 총체성이라는 관점 대신, 텍스트가 이데올로기를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내며, 그 이데올로기에 조응되는 유토피아적 충동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시각에 따라 보면, 서구의 19세기 모더니즘 작품들에 나타난 유머, 냉소, 해학, 판타지, 꿈, 백일몽 등은 사물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주어진 감정구조에 저항하면서 현실에 균열을 내는 유토피아적 충동의 표현이다. : 프레드릭 제임슨, 이경덕·서강목 옮김, 『정치적 무의식』, 민음사, 2015. : 오길영, 『서사와 유토피아적 충동-제임슨의 서사이론』, 『비평과 이론』 제21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6, 145면.

게 재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신구문화사 출간 『전후문제작품집』에 실린 작품들을 보고 당대 사회의 모순점을 그려내는 필치에 충격을 받았다는 작가의 언급이나⁹⁾, “1960년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써낸 소설들은 한낱 지독한 염세주의자의 기괴한 독백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작가의 고백으로 보아,¹⁰⁾ 김승옥 소설이 그려내고 있는 시대적 징후와 그 ‘시대적 징후’라는 것을 특정한 방식으로 암시하는 언어적 감각의 관련성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 판단된다. 더불어 최근 4·19와 5·16 사이 정치적 굴절과 배경에 대한 사회문화사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의 등장과 개발, 근대화 체제로의 급격한 재편성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의 변동을 김승옥 소설이 민감하게 포착한 부분들을 새롭게 주목해 볼 여지가 생긴다.¹¹⁾ 4·19 세대 문학의 정치성을 개발주의에 대한 자발적 동참에 저항하는 소극적 냉소주의적 주체의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연구 역시 이러한 흐름에 속한다.¹²⁾

9) 김승옥, 『작작해설』, 『뜬세상 살기에』, 위즈덤하우스, 2017, 20면.

10)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60년대 작가’라는 별칭이 붙어다니는데, 아년게 아니라 이제 보니 이 카테고리야말로 1960년대 상황 인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다. 1960년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써낸 소설들은 한낱 지독한 염세주의자의 기괴한 독백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60년대라는 조명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소설들은 일상적인 모습으로 동작하는 것이다. 내가 ‘60년대 작가’임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자리를 확인해 보려고 고개를 돌려보며 두리번거리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시대의 현상과 징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상력의 빛을 여기저기 들이대보고 있는 젊은 작가의 모습이 다소 그렇게 회상된다.”: 김승옥, 『작가의 말-나와 소설 쓰기』, 『김승옥 소설전집』 1, 문학동네, 2004, 8면.

11)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 공임순, 『4·19와 5·16, 빈곤의 정치학과 리더십의 재의미화』, 『서강인문논총』 38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12, 159-204면.

12) 김영찬, 『1960년대 문학의 정치성을 ‘다시’ 생각한다』, 『상허학보』 40집, 상허학회, 2014, 203면.

이 점에서 문장 조형의 양상뿐만 아니라 김승옥 소설의 ‘글쓰기’를 이루는 원천의 외연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확장시키고자 한 연구들이 주목된다. 가령, 언어 그 자체의 기표로서의 성격이 새로운 기의를 창조해내는 ‘의미론적 맹점’의 영역이 김승옥 서사의 해석상 풍요로움을 담보한다는 언급¹³⁾, 시각적 사고와 감각적 지각의 역할이나 반복과 점층의 의미 강화 효과라는 특징을 1930년대 이상의 글쓰기와 비교하여 추출한 연구¹⁴⁾ ‘연상’과 ‘가정’ 등의 주요한 서사조직 원리 자체에 초점을 맞춰 구체화된 결론을 내고 있는 연구¹⁵⁾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처럼 문장 단위를 벗어난 글쓰기의 조직 원리에 대한 총괄적 고찰을 바탕으로, 사회시학적 관점에서 김승옥 소설 언어를 분석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은 이 글의 문제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주요한 참조점이 되었다. 가령, 『서울, 1964년 겨울』을 대상으로 문체 분석의 기본 단위를 문장이 아닌 발화(utterance)에서 찾고, 현대화된 도시의 사회 언어문법을 밝혀낸 연구¹⁶⁾, 4·19와 5·16을 거친 대학생 주체의 환멸을 파편화된 문체나 대화적 담론성이라는 표현적 형식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바라본 논의¹⁷⁾, 김승옥 소설이 발화된 언술 차원에서 당대의 지배담론을 차용하고 비트는,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정치적 발화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¹⁸⁾ 단, 이들 연구는 『서울, 1964년 겨울』이

13) 서영채, 앞의 글, 145면.

14) 김명석, 앞의 책 ;장현숙, 『이상의 글쓰기 방식 수용 양상 연구- 이상, 황순원, 김승옥, 최인호의 서술기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411-443면.

15) 백지은,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글쓰기 특징-『다산성』(1966)의 문맥 형성과정 고찰』, 『국제어문』 44집, 국제어문학회, 2008, 303-327면.

16) 최인자, 앞의 글, 359-378면 참조.

17) 임경순, 『김승옥 소설의 모더니즘적 특성에 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11집,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231-248면.

라는 작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김승옥 소설 전반에 걸쳐 60년대의 언어사회적 상황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65년 이후의 작품, 『싸게 사들이기』, 『내가 흠친 여름』, 『다산성』, 『야행』의 경우 『육십년대식』과 같은 김승옥식 세대소설로 가는 길목에 놓인 작품들로서, 세대를 묘사하는 소설적 언어의 생성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고 굴절되는 공간을 담론의 대화성의 공간에서 찾은 바흐친의 언어론¹⁹⁾, 그리고 이에 기반한 다성성(多聲性) 개념을 김승옥 소설 분석에 적용할 것이다.²⁰⁾ 김승옥 소설에서 지배담론의 언술을 인용하며 그것을 비틀고 거리를 두는 방식의 발화들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역사(力士)』(1963), 『싸게 사들이기』(1964), 『서울, 1964년 겨울』(1965), 『다산성』(1966), 『내가 흠친 여름』(1967), 『야행』(1969)에 나타난 4·19, 베트남 파병 등 구체적 사회사와 결부된 지배담론의 언술 차용과 그 언술을 자유모티프 (free motif)나 여담, 혹은 패스티쉬 형식으로 발화하는 양상을 확인해 볼 것이다.

18) 박진영, 『1960년대 지배담론의 수사와 〈서울, 1964년 겨울〉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Jornal of Korean Culture* 27집, 2014, p.101-120.

19) 바흐친은 언어를 구조화된 총체적 규범으로 보는 대신, 소쉬르의 파롤, 즉 실제적 맥락에서 발화되는 수행행위로서의 언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에 따르면 언어행위란 특정한 사회적 시점에서 '사회적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관심사와 주제가 선결정되는 이데올로기적 행위이며, 이는 표현을 통해서만 그 형식과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전제 하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공간 그 자체에서 발화의 의미가 탄생한다고 보며, 물리적 형태의 대화뿐만 아니라 인쇄된 형태의 모든 메시지에도 이러한 대화 작용이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는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되고 굴절되는 장소이다. : M. 바흐친, 송기한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한겨레, 1988, 29-34면/ 129-136면.

20) 프레드릭 제임슨이 '사회적 상징행위로서의 서사' 개념을 주장하며 바흐친의 서사에 대한 분석적 시각에 기대고 있음은 Fredric Jameson, *The Antinomies of Realism*, London : New York : Verso, 2015, p.4 참조

바흐친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시적 언어와 대별되는 소설적 언어의 특징으로 ‘혼종화’와 ‘겹목소리’라는 특징을 제시하였다.²¹⁾ 이는 단일한 진리의 언어로서의 시적 언어와 대별되는 것으로, 다양한 사회계급의 이해관계나 가치관, 신념의 충돌과 교차를 드러낼 수 있는 갈등의 언어를 구상한 것이기도 했다. 주로 스몰렛, 스티븐, 디킨즈로 이어지는 영국 희극소설의 전통 내에서 타인의 언어를 그대로 빌려와 작가의 언어와 뒤섞이도록 만들며 기존 언어에 거리를 두는 ‘혼성 구문(hybrid construction)’, 기존 여론을 그대로 차용해 서술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등과 같은 접속어로 마치 그 여론을 승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지만, 실제 의미는 그와 반대됨을 암시하는 ‘의사객관적 동기부여’의 방식이 그 사례로 제시된다.²²⁾ 이와 같은 혼성 구문이나 의사 객관적 동기부여가 전제하는 타인의 말, 한 발화 속에 겹쳐져 있는 여러 목소리의 혼합이라는 문체는 “말의 유형과 유형, 언어와 언어, 세계관과 세계관 사이의 경계와 관련된” 유동성의 공간을 창출한다.²³⁾

이 유동성의 공간이 김승옥 소설과 관련될 때, 지배담론의 언술을 차용하거나 비트는 발화를 소설 속에 종종 삽입하고 있는 김승옥 소설의 언술 구조상 특징과, 60년대식 감정구조의 확립에 균열을 내는 정치적 발화 및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바흐친이 서구 소설들을 이루는 언어의 다성성에서 소설적 언어 자체의 특성을 귀납적으로 구상하려 한 반면, 김승옥에게 있어서는 당대 사회를 관찰하고 기록하되 이것을 우회적 방식으로 언급함으로써 지배담론 자체에 균열을 내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단, 이

21) 게리 솔 모슨·캐릴 에머슨, 오문석 외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545-555면.

22) 미하일 바흐친, 『소설 속의 담론』, 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111-119면.

23) 위의 책, 120면.

러한 점은 소설 플롯의 핵 모티프로 전면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대화적 언어를 사용한 부분들이 그 자체로 정치적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의 ‘유동적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을 언급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김승옥 소설 언어를 기표의 연쇄로 이루어진 새로운 의미창조의 공간, 그 곳에서 발생하는 ‘의미론적 맹점’의 영역이 그의 소설의 특징이자 해석상 풍요로움을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언급과도 이어지는 것이다.²⁴⁾

2. 생산 담론에 대한 혼성 구문과 패러디적 효과

5·16 직후는 혁신세력을 중심으로 한 신생활운동서부터 새로 집권한 군부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전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담론으로 넘치던 시기였다.²⁵⁾ 4·19 이후 이어진 학생세력에 의한 사회혼란에 대한 경계와 신중론은 새로운 문화창조에의 기대와 맞물려 ‘거칠 것 없이 생산적 목표를 향하여 진력하는 생산적 청년상’에의 요구로 이어졌다. 가령, 서울대 『대학신문』의 권두언에서는 여가를 사치로 규정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중시하는 서구 문화와 너무 많이 쉬는 것을 경계한 동양의 전통을 대비시키며, 생산력 증가를 말하는 글이 눈에 띈다. 이 글에서 ‘쉬는 것’, ‘게으른 것’에 대한 경계는 실업률 증가와 함께 다방 등에 나와 노니는 대학생들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²⁶⁾ 한편 부

24) 서영채, 앞의 글, 142-145면.

25) 신형기, 『혁신담론과 대중의 위치』, 『현대문학의 연구』 47집, 2012, 263-295면 참조

26) 『휴가, 여유, 그리고 창조』, 『대학신문』 349호, 1961.7.10./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마로니에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1면 고정칼럼 25년 1959~1984년』,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139-140면.

정부패 시대의 유흥과 향락의 온상을 비판하는 것으로 레크리에이션을 ‘악(惡)’으로까지 규정하는 신생활운동 주체로서의 학생 담론도 발견된다.²⁷⁾

4·19 이후 실질적으로 정치 참여의 가능성이 봉쇄된 것에 대한 실의와 허탈감의 분위기나²⁸⁾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된 근대화론과 민족 담론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적 분위기와는 별개로, 기성세대가 혁명의 주체로서 ‘학생’을 규정하고 ‘혁명 이후’를 지시하는 방식에는 이처럼 새로운 사회와 문화의 창조자라는 모호한 기표와 청년들을 향한 계몽의지가 혼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호한 기표가 호국건설단, 농촌계몽대 등 일정한 방식으로 사회를 ‘계몽’해야 한다는 청년들의 폭발적 의지와 결합되었다.²⁹⁾ 4·19를 일궈낸 학생들은 소비와 사치를 경계하고 빈곤한 농촌을 살리는 방식으로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며 새로운 문화와 사회의 창조자로서 자리매김되고 있었던 것이다.³⁰⁾

- 27) “갓가지 불필요한 악의 근원들이 레크리에이션이다. 문화시설이다 하고 준비하다. 신국가건설의 영광스러운 마당에 어찌 신생활운동이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힘있는 자의 차림과 표정은 간소하고 명랑하며 눈동자는 희망에 차 있는 법이다. 어찌 타성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탈피하고 씩씩하게 새 출발하자.”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마로니에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1면 고정칼럼 25년 1959~1984년』,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394면.
- 28) 김동식, 『4·19 세대의 정치적 무의식과 초현실주의』라는 기호(記號)-하길종의 영화와 글쓰기에 관한 몇 개의 주석』, 『대중서사연구』 27집, 대중서사학회, 2012, 77-108면.
- 29) 4·19 이후 학생세력에 의해 나온 ‘신생활운동’과 같은 혁신담론은 주로 유한부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사치를 규탄하고, 빈곤한 농촌계몽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되었다. (주섭일, 『성곽의 파수병에게』, 『동아일보』, 1960.7.26. (신형기, 『혁신담론과 대중의 위치』, 『현대문학의 연구』 47집, 2012, 271면 재인용
- 30) ‘안일’과 ‘나태’에 대한 경계는 ‘진진’의 가치와 대조되는 것으로, 또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가령, 『사상계』 1962년 3월호는 ‘진진하는 전통사회’라는 특집명으로 5·16 이후 지향해야 할 ‘진진’의 함의를 구체화한 글들을 실고 있다. 이 중 유영준의 『특집 진진하는 전통사회- 진진에 반항하는 전통적 가치

김승옥 소설에서 한없이 게을러지고자 하는 청년 주인공의 서사와 그의 발화는 이러한 점에서 당대 이상적 청년을 주조하는 지배담론의 언술과 대조적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창조를 지향하는 청년이 되라는 요구 자체가 의문과 회의의 대상이 된다. 이 점에서 『역사(力士)』에서 창신동 빈민촌을 떠나 양옥집에 들어간 대학생 주인공이 맞이하게 되는 양옥집 질서와 그에 대한 은밀한 반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가부장적 할아버지에 의해 통제되는 양옥집의 질서는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삶을 의미한다. 피아노를 치고 식사를 하는 등의 하루 일과는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 아래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삶은 빈민가에 살던 나에게는 어리둥절한 것이며,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60년대 막 시작된 산업화의 징후로서의 시간의 분절과 통제를 읽어낼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통제에 대한 청년 주인공의 반감이 드러나는 언술이 '무언가를 창조해야 한다'라는 청년에 대한 당대 담론의 호명을 직접적으로 비트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를 『사상계』 1962년 3월호 '특집-전진하는 전통사회'란에 실린 한글과 비교하며 지배담론과의 관련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가족의 계획성 있는 움직임, 약간의 균열쯤은 금방 땀질
해버릴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는 전진적 태도, 무엇인가 창조

」(『사상계』, 1962.3, 62-71면)에서 필자는 '전진'이라는 말의 뜻을 인간이 만들어놓은 많은 영역에서의 만족감의 형성으로 전제하고 감각적 쾌락, 사회적 지위, 애정 등등으로 세분화한다. 그 이후 개개인의 만족감의 증진이 모여 사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이 '전진'을 방해하는 '전통적 가치'의 사례를 들고 있다. 글쓴이가 들고 있는 사례란 첫째 파벌 형성 등 사회통합의 약화와 갈등 관계, 둘째 사회 제 집단의 추구 가치관의 충돌, 셋째 가치 추구에 있어서 나타나는 충동성, 넷째 모험을 피하고 현 상황에 안주하고자 하는 안일과 나태이다.

해내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이 만들어준 그늘 없는 표정-문화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회구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달리고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느 지점과의 거리를 단축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이것이 나의 그들에 대한 이해였다.³¹⁾

넷째로 우리 한국민들에는 안일을 탐하고 발전의욕이 약한 경향이 있다. 현상에 체념을 하고 과거의 타성을 좇으며 창조적 모험을 피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안전감을 주는 효과는 있다. (중략) 타습(惰習)과 안일은 권태감을 빚어낼 것이며 이것은 고통화할 수도 있다. 자기가 맡은 바 가치활동의 영역에서 부단의 창조활동을 계속해 가는 것은 정신위생상 또는 복지감을 증진시키는 견지에서 극히 중요한 것이다.³²⁾

박정희는 한글을 예로 들며 민족의 심오한 문화유산과 긍정적 전통이 존재하였으나, 이후 이 전통이 조선왕조 하에서 변질되어 마치 허위와 나태, 체념 등 전통의 부정적 측면만이 인식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해방과 4·19, 5·16을 거치면서 재건의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새롭게 만들어진 혁신적 분위기 하에서 이러한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정적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1962년 펴낸 『우리 민족의 나갈 길』 중 ‘사회재건(국가)의 이념과 철학’ 제 8장 ‘민주적 이념과 문화와 교육의 새로운 질서’ 장에는 문화 정책의 방향과 이념에 대한 서술이 담겨 있다. 이 책에서는 개개인의 문화 창조적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그 문화적 능력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통제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 말하고 있다. 또 1971년 발표한 『민족의 저력』에서는

31) 김승옥, 『역사(力士)』, 『김승옥소설전집』 1권, 문학동네, 2004, 107면.

32) 유영준, 앞의 글, 71면.

십년 전 제시한 문화민족론을 관통하는 “전진과 발전”,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라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³³⁾

『역사』에서 ‘나’의 눈에 비친 양옥집 사람들은 “전진적 태도”, “창조해 내고 있다는 듯한 자부심”으로 짝 찬 ‘문화적인 것’의 상징적 표상이다. ‘나’의 발화에 담긴 이러한 표현들은 문화재건이나 전진적 표어를 내세운 당대의 지배담론을 다분히 의식한 내용으로 보인다. 일정 시간에 해야 할 일과가 정해져 있고, 또 강력한 가부장인 할아버지의 통제 밑에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새롭게 권력을 잡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이념이 글의 형태로 구체적으로 명시화된 1962년 시점과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다.

엄격하게 분절된 근대적 시간을 표상하는 양옥집의 생활에 반감을 가진 나는 식구들의 잔에 최음제를 타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자발적인 욕망의 순간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란다. 매일 밤마다 동대문에 가서 돌을 드는, 무의미해 보이지만 사회의 어떤 범주에도 포섭되지 않는 자신만의 존재가치를 은밀히 확인하는 서씨의 “몽상적인 성실”이 양옥집에 필요하다 판단한 나는, 그 범주화되지 않은 자연적인 욕망을 일깨우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처럼 양옥집의 생활이 생산과 전진의 구호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분절된 산업화 초기 시점의 지배 전략과 담론을 형상화한 것이라면, 서씨의 존재와 ‘나’의 양옥집에 대한 의식적인 반감은 이러한 분위기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

33) “5·16 혁명이 일어나고 일대 혁신의 기운이 사회 저변으로 뻗어갈 때, 나는 민족의 문화적 자주성(文化的 自主性)을 견고히 지키고 정신 문화의 꽃꽂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주의 이념(民族主義 理念)을 제시했다. 우리의 전진과 발전을 확고부동하게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일각에 나돌고 있는 자학적 체념(自虐的 諦念)을 극복하고 자기의 능력을 새롭게 재발견하며, 문화 민족으로서의 긍지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통 안에 숨어 있는 민족적 지혜와 긍지를 최대한도로 계발(啓發)하고 민족주의적 정열과 환희로써 합심하여 전진할 것을 선언했다.” ; 박정희, 『민족의 저력』, 광명출판사, 1971, 269면.

의 욕망의 말살, 약동하는 생명력의 약화라는 주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내가 훔친 여름』(1967)에서는 교수의 돈을 훔쳐 달아난 대학생이 자신이 속한 청년 계층을 ‘사기꾼’으로 인식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 예로 기차에서 만난 옛 친구들이 고향을 재건하자 권유하며 자신을 ‘건실한 청년’으로 보는 것에 대해 자조하는 장면, 하숙집 할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나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잔머리를 썼던 기억들을 회고하는 장면이 있다. 이 때 돈을 훔치고 고향가는 기차 안에서 만난 친구들의 발화, “우리 모두 고향으로 가서 고향을 재건”하자는 것은 당대 청년들에게 요구되던 지배적 이상과 관련되며, 사기꾼 주인공의 처지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를 발생시킨다.

우리민족은 세계에 내놓고 보면 IQ가 140은 되는 민족이다. 몽치자 몽쳐, 너도 몽치고 나도 몽치자에서 시작하여 너희들 제대하고, 나 대학 졸업하면 우리 모두 고향으로 가서 고향을 재건하자. 고향은 너무 황폐해버렸다. 숲도 만들고 농장도 만들자, 어찌구 저찌구.

교수님 돈을 슬쩍해가지고 도망가는 놈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그 친구들은 역시 너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의 모범이었어. 어찌구 하며 부푼 가슴으로 나를 존경한다는 것이었다. 나 참.³⁴⁾

농촌을 재건하고, 경제를 살리는 몫이 청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청년담론³⁵⁾을 의식한 이와 같은 장면은, 그러나 사실 그 기대의 주

34)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김승옥 소설전집』 3, 문학동네, 2004, 38-39면.
35) 농사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잘 살 수 있다는 생활에의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급선무로 말하고 있는 글에서는 이 당시 농촌계몽운동, 향토운동 등의 학생운동이 ‘잘 살아보자’는 빈곤탈출의 명제와 긴밀하게 맞물린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편, 『향토운동의

인공이 돈을 훔쳐 달아나는 ‘사소하고도 하찮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것이다. 그와 함께 여수로 가는 ‘가짜 대학생’ 장영일과 함께 남을 속이는 일을 하는 대학생 주인공의 모습은 국가와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호명되던 당대 청년 담론에 의식적으로 균열을 낸 결과이다.

『다산성』에서 대한 과학의 시대에 대한 맹신을 드러내는 국민무대 연출자의 두서없는 발화와 그 궤변의 유머러스함 역시 ‘과학’이 상징하는 당대의 물질적 가치 지향성에 대한 견고한 믿음에 균열을 내는 역할을 한다. 그는 어릴 적 토끼를 사랑했지만, 커가면서 그것이 차차 털, 혈청 등을 이용하기 위한 대상임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토끼의 ‘생명력’을 인간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포부를 품는다. 그의 연극에 토끼가 출현하는 것은 바로 그 토끼의 생명력을 이용한 결과이다.

좀 자란 뒤엔 사람이 토끼를 기르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토끼의 가죽과 털, 토끼의 고기, 토끼의 혈청, 대강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중략) 제가 토끼를 대했던 태도 (토끼의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끼의 생명력을 이용하는 태도-인용자 주), 그것은 건축으로 말하자면, 너무 뼈대뿐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현대 과학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 태도 내지는 과학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³⁶⁾

김승옥에게 있어 ‘과학’이라는 것은 ‘생명력’이나 ‘영혼’과 같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들과 대립된 위치에 놓인, 현상에 관한 표피적이고 실리적인 태도를 지칭하는 기표이다. 2020년이라는 미래 시점을 그

방향-실용성을 가진 교육과 창의 있는 정열을 쏟아, 『대학신문』 1962.3.5., 4면.)

36) 김승옥, 『다산성』, 『김승옥소설전집』 2, 문학동네, 2004, 153-154면.

리고 있는 『준의 세계』에서도 광속 로켓을 개발하는 최고의 촉망받던 과학자는 인간이 왜 화성에 가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결국 빛보다 빠른 비행체는 인간의 영혼이라는 깨달음을 동료 과학자들에게 알려주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동료 과학자들은 자살을 택한다. 그가 발견한 ‘영혼’이란 살인자가 되어버린 자신을 위하여 순수한 눈물을 흘려준 준의 어머니의 마음이다. 이 이야기에서 ‘과학’은 물질세계와 대비되는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성의 영역과 대립되는 자리에 놓여 있다. 37)

이렇게 볼 때, 토끼의 생명력을 이용한다는 국민무대 연출자의 기양양한 말은, 작가의 신념과는 배치되는 자리에 놓인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이 연출자의 발화를 아이러니한 것으로 읽도록 하는 것은 이후 전개되는 논리적 비약에 의해서이다. 토끼가 빛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기자는 조건반사를 이용한 것 같다고 말하자, 연출자는 강력하게 부인하며 조건반사는 개별적 경우들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자신이 발견한 것은 어떤 토끼에게라도 적용되는 보편적 진리라 주장한다. 이 ‘퀘벡’ 식의 발화가 흥미로운 것은 생물의 생명력을 인간을 위해 ‘이용’한다는 실리성과 자신의 발견이 ‘보편적 진리’임을 주장하는 언술이 당대 과학담론을 비롯한 지배담론의 언술과 겹쳐져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건반사는 개별적인 것이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보편적인 것이란 말씀입니다. 반드시 저기 있는 저 토끼가 아니라도 어떠한 토끼일지라도 우리 연극의 무대에 올려 놓으면

37) 김승옥, 『준의 세계』, 『김승옥 소설전집』 5, 문학동네, 2004, 233-235면. 이 작품은 콩트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정숙은 단일하지 않은 서사구조와 플롯의 존재 등을 들어 소설로 분류가능함을 논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류 기준에 공감하며 소설로서 이 작품을 다루고 있다. : 이정숙, 『김승옥 정전의 재구성-배제된 ‘웃음의 서사’, 콩트』, 『한국근대문학연구』 18집, 한국근대문학회, 2008, 101-125면.

우리가 일정한 빛과 일정한 냄새와 일정한 소리를 제공하는 한 토끼는 훌륭한 하나의 연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중략) 연출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놀라운 발견이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어느 숨겨진 장소에서 위대한 실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나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인간들을 위해서 토끼들도 활약할 시대가 오는 것이다. (중략) 나는 정중한 음성으로 존경심을 나타내려고 애쓰며 그렇게 말했다. 위대한 시대만 온다면, 구두 한 켤레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38)

사실 주인공인 김 기자는 불교의 윤회, 팔식(八識)론을 가져와서 ‘동물에게도 무엇을 알고 판단하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유추했다는, “지극히 비과학적인 가설”로서 토끼 실험을 행했다고 말하는 연출자의 말에 우스갯소리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느낀 바 있다. 이 지극히 비과학적인 가설에서 출발한 토끼 실험이 ‘인간을 위해 그 생명력을 이용’한다는 명분에 가려 ‘위대한 시대’를 이끌 엄청난 발견이 되어버리는 장면은 그 이치에 맞지 않음으로 인해 유머러스한 분위기마저도 내비친다. 그러나 끝까지 주인공 김기자는 위대한 시대의 가능성을 보인 연출자에게 정중하게 경의를 포함으로써 그 아러니를 극대화한다.

이러한 이중적 연술은 과학을 인간에 의해 활용될 모든 가능성의 메타포로 보고 있는 당대의 연술들과 일정 부분 겹쳐진다.³⁹⁾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민족의 근대화와 부국강병을 이룩해야 한다

38) 김승옥, 『다산성』, 앞의 책, 160-161면.

39) 『다산성』에서 국민무대 연출자의 발화는 과학담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연결되는 더 큰 계몽의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공연이 시작되자 연출자는 관객들을 향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파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여러분을 구제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라 말한다. 관객을 수동적이며 구제해야 할 대상으로 상정하는 연출자의 이와 같은 발화는 강력한 계몽의 욕망을 드러내는 지도자 담론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는 기술민족주의적 시각은 당대 담론장에서 익숙한 것이기도 했다. 가령 19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사상계』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민족의 중흥을 불러온다는 기술민족주의적 시각을 강력하게 노출하고 있다. 60년대에 이르기까지 주된 기사는 원자력 에너지의 활용, 미국과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냉전 논리의 반영, 민족 계몽의 원동력으로서의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담론들이다.⁴⁰⁾

이처럼 「역사」, 「내가 흠친 여름」, 「다산성」에서는 후진국발 경제적 근대화 담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생산 담론을 발화 속에 삽입하고 이를 비트는 방식의 혼성구문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서 당대 지배담론에 대한 명확한 비판지점이나 논리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혼성구문의 차용과 패러디적 효과를 통해 60년대 초중반, 경제적 근대화를 지상의 과제로 내세우며 모든 ‘반동적’ 움직임을 통제하는 획일화된 사회 분위기로 변화하는 현실을 문제적으로 생각해볼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3. 의미의 환유/은유적 교차와 체제의 억압성 암시

「서울, 1964년 겨울」에 나오는 나와 대학원생 안의, 마치 동문서답같이 이어지는 대화 장면 속에서의 ‘테모’, ‘꿈틀거림’에 대한 언급이나, 「내가 흠친 여름」에 나오는 여수 지역사회문제연구소 주최 토론 장면에서 ‘테모’에 대해 말하는 장면은 1960년대 정권의 억압적 체제와 그 속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의 처지를 암시한다. 그런데 이 장면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소설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다고 인식될 정도의 강력한 충격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며, 일순간의

40)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와 젠더의 재구성」, 『여성문학연구』 39집, 한국여성문학학회, 268-276면.

한 장면으로 스쳐 지나가는 인상을 준다. 이는 이들 장면이 일종의 자유모티프(free motif)로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장면은 이전과 이후 장면에서 쓰인 어구들과의 환유적 관계나 혹은 문답 상황 자체의 상징성과 외부적 의미를 지시하는 은유성 때문에 소설 전체적 구조로 보았을 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 1964년 겨울』에서 나와 대학원생 안 사이에 이뤄지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무의미해 보이는 대화 장면이 이에 해당된다. 안은 나에게 꿈틀거리는 것을 사랑하느냐 묻고, 나는 버스 안에서 본 여자들의 아랫배와 호흡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어떤 꿈틀거림이 아닙니다. 그냥 꿈틀거리는 거죠. 그냥 말입니다. 예를 들면……데모도……”

“데모가? 데모를? 그러니까 데모……”

“서울은 모든 욕망의 집결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라고, 나는 할 수 있는 한 깨끗한 음성을 지어서 대답했다.⁴¹⁾

②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오.” 나는 좀 귀찮은 생각이 들었다. “안형은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한 얘기는 정말이었습니다.”

“난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는 붉어진 눈두덩을 안경 속에서 두어 번 꿈벅거리고 나서 말했다. “난 우리 또래의 친구를 새로 알게 되면 꼭 꿈틀거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얘기는 오 분도 안 돼서 끝나버립니다.”⁴²⁾

41)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김승옥 소설전집』 1, 문학동네, 2004, 263면.

42) 위의 책, 264면.

③

“의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종로 2가에 있는 빌딩들의 벽돌 수를 헤아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무의미한 겁니다. 아니 사실은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난 아직 그걸 모릅니다. 김형도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 한번 함께 그거나 찾아볼까요. 일부러 만들어붙이지는 말고요.”⁴³⁾

인용문 ①에서처럼, 꿈틀거림에서 욕망으로, 욕망에서 다시 데모로 이어지는 단어의 흐름 속에서는 인접한 것 사이의 의미의 연쇄성으로 표현된 환유가 개입되어 있다. 이를 통해 여자의 아랫배에 대한 이야기에서 욕망으로 다시 데모로 문답이 자연스럽게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깨끗한 음성”으로 마무리하고 난 이후 이어지는 안과 나의 대화는 가로등, 벽의 손톱자국 등 의미 없어 보이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문답을 이어가고 있는 듯 보이는 이 장면 속에 각자 자신이 의미하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화가 아니라 독백의 연쇄일 뿐이라는 점은 인용문 ②와 ③의 반복으로부터 여실히 드러난다. 가령, 인용문 ②에서 아랫배와 꿈틀거림에 대해 이야기한 ‘나’는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말했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데모에 대해 이야기하는 안은 ‘꿈틀거림’에 포괄될 수 있는 60년의 혁명과 학생들의 욕망에 대해 말하고 있기에 마치 거짓말처럼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60년대 중반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미상 차이는 지속되어, 인용문 ③에서처럼 사소한 것들을 자신의 소유로 말하면서 유희를 즐긴 ‘나’와, 그러한 유희를 연기하면서 희망이 없는 억압적 체제 하의 삶을 견뎌 나가려는 대학원

43) 위의 책, 268-269면.

생 ‘안’이 말하는 ‘무의미’가 동일한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것이다.

이처럼 ‘데모’와 그것이 상징하는 억압적 체제라는 문제는 나와 안 사이 발화의 어긋남으로부터 발생된다. 나와 안의 대화상 어긋남은 4·19를 고평하고 학생 세력과의 공존을 꾀했던 박정희 정권이 집권 이후 학원과 학문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계엄령을 통해 통제할 상황⁴⁴⁾, 그리고 1964년 이후 대학생들의 데모를 전면 에 나서서 억압하는 정치적 상황의 변모라는 상황을 전제해야 하는 것이다.⁴⁵⁾ 이 억압적 체제의 공고함에 더 이상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의식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일상의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옛날의 ‘꿈틀거림’과 욕망의 표출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모습 사이의 차이가 이들 대화의 어긋남을 빚어낸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 때 대학원생 안이 말한 ‘거짓말’이나 ‘무의미’는, 마치 거짓말처럼 수 년 사이에 4·19로 상징되는 사회변혁 의지가 너무나도 쉽게 억압되게 된 상황을 은유적으로 지시하게 된다.

즉, ‘아랫배-꿈틀거림’은 연상에 의한 환유이며, ‘꿈틀거림-데모’는 서로 다른 범주에 놓인 것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연상되었다는 점에서 은유적 속성이 강한 환유라 볼 수 있다.⁴⁶⁾ 그리고 이 맥락이

44) 이극찬, 『대학생과 정치적 관심』, 『사상계』 1962.4, 114-116면.

45) 이와 같은 상황은 5·16 이후 계엄령 하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활동이 제약되었음과, 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고작 “영화를 보는 일과 뮤직홀에 가서 음악을 듣는 일 정도”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이 보여주는 소극적 방관주의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태길의 글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민주당 정권 아래서 일부의 학생들이 보여준 바와 같은 배타적 영웅주의도 진실로 이 나라를 건지는 길이 못되나 오·일육 이후에 일부 학생들이 취하는 바와 같은 소극적 방관주의도 젊은이들에게 요구되는 참된 태도가 아닐 것이다. (중략) 그리고 오·일육 혁명이 내린 계엄령 아래서는 학생들이 창의성 있는 활동을 하기에 많은 제약이 있음도 사실이다.” : 김태길, 『특집 젊은 지식들의 광장-파이오니어로서의 자세』, 『사상계』 1962.4, 98-101면.

앞에 전제된 상황에서 ‘거짓말’이나 ‘무의미’는 ‘데모’의 속성에 인접하여 연결되는 환유의 속성을 지니며, 다시 그 자체가 4·19 이후 한국사회를 함축적으로 지시하는 용어라는 의미를 동시에 띠게 된다는 점에서 은유의 속성 또한 갖는다. 이처럼 의미의 환유, 은유가 교차적으로 연쇄됨을 통해 당시의 정치적 상황의 변모를 암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질적 의미를 지닌 모티프의 환유적 연쇄를 통해 억압적 체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방식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문제의식으로부터 쓰였다는 『야행』(1969)에서도 찾을 수 있다.⁴⁷⁾ 『야행』의 중심 서사는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숨긴 채 살아가는 현주의 공허한 심리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의 역센 힘을 그리워하는 이중적 욕망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김승옥이 처음 『야행』을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발화를 하기 위해서 쓰게 되었다고 한 언급을 참조해 볼 때⁴⁸⁾, 국익을 위해 베트남 파병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가, 자신의 약혼자를 비롯한 남자들의 나약함에 실망한 한 여성의 이야기로 우회적으로 형상화된다는 독법도 가능하다.

46) 은유는 범주가 서로 다른 두 대상 간 ‘유추’를 통해 본질적인 유사성을 찾아내는 반면, 환유에서는 ‘연상 작용’을 통해 인접성을 찾아낸다. :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1999, 263면.

47) ‘은유와 연상’이 1965~66년 이후 김승옥 소설에 있어서 주요한 서사 조직 원리로 작용하고 있음을 『다산성』(1966) 분석을 통해 밝힌 연구로는 백지은,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글쓰기 특징-『다산성』(1966)의 문맥 형성과정 고찰』, 『국제어문』 44집, 국제어문학회, 2008, 303-327면 참조

48) “나로서는 항상 여러 앵글에 의해 여러 의미가 추출될 수 있는 소설을 쓰는 것이 작품 쓸때마다의 포부인데, 이 작품 역시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태도에 대해 야유를 한다는 보물찾기 쪽지를 숨겨놓고 소설언어의 살을 입힌 것이지만 지나치게 형상화해 버린 탓인지 모두 단순한 풍속소설 또는 여성 심리 소설로만 보는 것 같다. : 김승옥, 『자작해설』, 『뜨세상 살기에』, 위즈덤하우스, 2017, 29면.

힘이 없는 나라의 젊은이의 처지와, 주인공 현주가 만나는 소심하고 계산적이며 나약한 남성들의 서사가 이어지는 지점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거리에서 남자들을 부르는 여급과 파병된 군인들을 ‘그들’이라는 대명사로 동시에 지칭하면서 연결하는 환유적 연상이다. 그리고 둘째는 현주가 영화관에서 본 파병 장면과 “꽃다발을 목에 걸고 손을 저으며 웃으며 죽어가는 종족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심리의 반복적 서술이 이뤄지는 결말부이다.

우선, 첫 번째 장면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인용 장면에서 거리에서 남자들을 부르는 여급들로부터, 전장에 끌려간 젊은이들에 대한 상념이 마치 영화의 디졸브(dissolve) 장면처럼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이는 현주의 이야기를 베트남전과 관련된 새로운 의미 지시 층위로 이끄는 매개가 되는 장면이기도 하다.

전에는 그 여자가 그들(여급-인용자 주) 을 보았다고 해도 거기서 아무런 의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무심히 지나쳐버릴 수 있었을 뿐일게다.

달리는 버스 속에서 그 여자는 그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울타리를 넘어 어디로 갔을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떤 곳일까? 울타리를 넘다가 그들은 감시병의 총격을 받는 않았을까? 군견의 혈떡이는 숨소리가 뒤를 쫓고 서치라이트의 둥그란 불빛이 그들의 등을 끝없이 쫓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그 여자는 그들이 무사히 도망했기를 빌고 싶었다.⁴⁹⁾

위의 인용문에서 보면, ‘지나쳐버릴 수 있었을 뿐일게다’까지는 거리의 여급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그 다음 문장인 ‘달리는 버스 속에서’로 시작되는 문장에서의 ‘그들은 “감시병의 총격을 받”을지도 모르는 파병된 군인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이라는 대명사로 자연스

49) 김승옥, 『야행』, 『김승옥소설전집』 1권, 문학동네, 2004, 352면.

럽게 연결되는 이러한 장면 전환으로 인해, 거리를 헤매며 “자기 자신을 더럽게 여기고 있는 여자들”과 “감시병의 총격을 받을” 수 있는 전쟁 참여자의 삶의 조건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닌, 연속된 의미를 새롭게 지니게 된다.

또 현주의 일탈에의 유혹의 연원은, 망설이는 남자들의 얼굴을 본 뒤에 느끼는, 또한 “꽃다발을 목에 걸고 손을 저으며 웃으며 죽어가는 종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쓸쓸함이다. 암전하게 길들여진 체제 순응적인 인간, 체제 순응적인 민족이 김승옥이 생각한 1960년대 지배적인 사회심리였고, 베트남 파병은 그런 점에서 ‘힘이 없는’ 민족이 감내해야 할 ‘쓸쓸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얼굴들을 한꺼번에 놓고 보게 되니 문득 우리 종족의 얼굴의 특징이 잡혀지는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이 제 나름의 색다른 인생에 의하여 싫든 좋든 이미 강한 개성을 가져버린 늙은이들의 얼굴이 아니라 이제야 자기 나름의 인생을 살게 될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의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 여자가 우리 종족의 얼굴 특징이라 하여 그 스크린 속에서 붙잡아본 것들은 아마 거의 정확한 것이었을게다. 그 특징들에 의하여 현주가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 남자들은 도무지 군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미군 식의 유니폼 때문일까? (중략)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떠한 디자인도 그들을 그렇게 보이게 할 수가 없으리라는 단정을 막연히나마 내리고 있었다. (중략) 현주는 그 젊은이를 군함에 태워보내고 싶지 않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마터면 화면을 향하여 두 팔을 내밀 뻔하였다. 그러나 화면은 곧 바뀌어서 나무끼는 태극기의 물결로부터 군함은 점점 멀어져갔다. 그때 그 여자는 지친 듯 허탈해지면서 느릿느릿 밀려드는 쓸쓸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⁵⁰⁾

가령, 조금 전, 그 사내의 얼굴이 그것이었다. 아니 그 사내

50) 위의 책, 338-339면.

가 젊고 호감 가게 생겼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얼굴을 본 이후에 그 여자의 내부에 번진 그 쓸쓸한 느낌 그것이였다. 스크린을 향하여 하마터면 팔을 내밀 뻔했던 그 유혹이였다. 꽃다발을 목에 걸고 손을 저으며 웃으며 죽어가는 종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그것이였다.⁵¹⁾

1964년부터 시작된 베트남 파병은 ‘6·25 보은’과 ‘반공의 십자군’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그마저도 1967년 이후에는 파월 기술자의 엄청난 경제적 이익에 대한 대대적 홍보와 함께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는 면이 강조된 결과였다.⁵²⁾ 현주에게 있어 자신을 유혹하는 남자들이 보이는 나약함이나 비굴함은 “꽃다발을 목에 걸고 손을 저으며 웃으며 죽어가는 종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이 두 가지 모티프는 의미상 관련이 없어보일지라도 인접해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의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즉 현주의 ‘일탈’이 조그마한 이익을 계산하느라 정작 중요한 가치에 뒤흔어지고 당당하지 못한 약혼자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 의미의 연쇄는 베트남 파병 역시 경제적 이익을 계산한다는 명분으로 더할 수 없이 초라해진 한국인들의 운명을 암시하는 차원으로까지 연상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다. 즉, 벌이를 유지하기 위해 결혼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남인 척 하는 소심하고 계산적인 약혼자의 행동과, 길거리에서 자신을 유혹하는 남자들의 나약함과 비굴함에 대한 현주의 반감은, 곧 국익을 위해 베트남 파병을 정당화하는 지배담론의 논리에 대한 반감과도 동일선상에 놓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내가 훔친 여름』에서는 여수의 청년들과 강씨 일가 간 다

51) 위의 책, 358면.

52) 김우성, 『베트남 참전 시기 한국의 전쟁 선전과 보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24-26면.; 장두영, 『베트남 전쟁 소설론』, 『한국현대문학연구』 25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08, 388면. 참조

툼 장면을 통해 학생들의 움직임에 봉쇄하는 당시 한국사회의 억압적 체제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제유의 방식이 발견된다. 2장에서 언급했듯, 대학생 주인공 이창수의 시각에서 자신을 포함한 ‘우리 세대의 젊은이’는 사기꾼으로 그려진다. 이 때 창수와 영일의 토론장면에서 등장하는 영일의 발화, ‘시대의 양심’과 같은 부분과 젊은이의 태도에 대한 생각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는 이후 여수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제유로 해석하는 데 있어 주요한 참조점이 되기 때문이다. 영일은 자신들의 세대가 그 이전세대로부터 물려받을 양심이란 것이 없는 세대, “주어진 인생을 그저 무사히 통과하려고만” 하는 나약한 세대라 평한다.

나는 인생을 사랑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을 모든 경우에 갖다놓고 시달림을 받아보게 하고 싶어. 그러면 결국 나의 영혼 속에 무언가 찌꺼기가 남을 거야. 난 그걸 양심이라고 하고 싶어. 난 우리 모두가 그래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무언가 우리 시대가 정리됐을 때엔 우리 시대의 양심이 남겨질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심이라면 그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강력한 투쟁도 우린 피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린 거의 모두가 주어진 인생을 그저 무사히 통과하려고만 해. 자기 집 식구들의 손에 의해서 무사히 수의(壽衣)가 입혀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꼴이란 말야. 그런 태도로 뒤에 남겨줄 만한 양심이 만들어질까?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하여 지켜야 할 만한 양심을 물려받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말야. (중략) 순한 양들은 항상 주인이 있어야 해.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은 못 하는 법이야.⁵³⁾

자신들이 직접 싸워 지켜낸, 모든 시달림의 결과물로서의 ‘양심’은 그 자체로 시대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영일이 본 젊은이들은

53) 김승옥, 『내가 훔친 여름』, 『김승옥 소설전집』 3, 문학동네, 2004, 50-51면.

세상에 주어진 질차들을 무사히 통과하려는 목표만을 가졌을 뿐, 무언가를 있는 힘을 다해 지키려는 투쟁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긍정적인 시대적 양심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이 몸으로 겪고 만들어낸 시대적 양심 또한 부재한 세대라는 주제는 이후 『육십년대식』이나 『그와 나』에서 그려지는 청년상과도 이어진다.

이러한 무기력하고 나약한 청년상은 이후 이창수와 장영일이 여행하던 여수에서 만난 청년들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가짜 미대생으로 속이고 들어간 강동우의 집에서, 여수 지역사회문제 연구소 주최 강연에 참여하게 된다. 그 와중에 강동우의 여동생인 강동순과 집안의 반대에 부딪힌 사랑을 하고 있는 남형진이 강동우의 형에 의해 폭행을 당한다. 남형진의 동생인 남형도를 비롯, 여수의 청년들은 그 폭력의 부당함을 항의하고자 강동우 가족을 찾아오는데, 강압적 태도에 의해 그들의 말은 완전히 수그러들고 만다.

“〈전략〉 아시다시피 첫째, 저희들은 자기들의 사랑을 보호해 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일까요? 둘째, 코피가 나도록 얻어맞고도 우리는 연설이나 한번 하고는 사과말 한 마디 듣지 않고 슬그머니 분을 참아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이 자리엔 폭력을 비난할 수 있고 응징해야 할 어른들이 한두 분만 계시는 게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린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군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해명이나 변명을 바랍니다.” (중략) 그보다 먼저 인상이 고약한 사나이가 나서서 ‘잔소리 마라, 건방진 자식들, 데모를 할 작정이야? 썩 가지 못해’ 하고 소리를 꽤 질렀어.“

“그래서?”

“그 호통에 기세등등하던 젊은이들이 그만 기가 팍 질려서 조용히 물러나버렸지.”

“병신새끼들!”

형도는 분통이 터지는지 중얼거렸다.⁵⁴⁾

이 소설에서 남형진은 좌익 경력의 아버지를 둔 사람으로서, 끊임 없이 자신이 간첩이라 오해받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인물이다. 그리고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강동순과의 사랑이라 말한다. 이 점에서 그가 당한 폭력은, 소설의 표면적 층위에서는 강동순을 부산의 어느 부잣집 며느리로 들이려는 가족들의 반대에 기인한 것이지만, 좀 더 넓게 보자면 ‘빨갱이’를 기표로 반공주의를 강화하며 체제 유지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세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폭력적 상황과도 맞물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데모를 할 작정이야?’라는 말 한 마디에 청년들이 기가 질려 조용히 물러나버리는 상황은, 이와 같은 강압적 통제의 분위기가 만연한 사회를 압축시켜 그린 것으로 읽다. 이 점에서 해당 장면은 부분(여수의 한 가정)으로써 전체(한국사회)를 지칭하는, 환유의 일종인 제유의 속성을 띠게 된다.⁵⁵⁾

이처럼 의미의 인접성을 이용한 환유적 연쇄나 은유적 표현을 통해 시대 상황을 암시하는 서술 방식은 문제를 전면화하기보다는 외부적 위치에서 그 문제를 스쳐 지나가듯 발화하고 무화시켜버린다는 인상을 주게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이 김승옥 소설을 정치나 시대적인 것과는 다소 무관한 것으로 읽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의미의 인접성을 이용한 화소들이 작품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배치되어 있음을 다시 살펴본다면, 이들 소설들이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듯한 60년대 소시민들의 삶 속에 얼마나 촘촘히 권력의 그물망이 개입되어 있는지를 순간적으로 환기하도록 하는

54) 위의 책, 223-224면.

55) ‘환유’는 전체성을 앞에 내세우는 경향이 많으며, ‘제유’는 부분으로써 전체를 나타내거나 전체으로써 부분을 나타내는 경우를 의미한다. : 김옥동, 앞의 책, 244-245면.

효과를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냉전론을 이용한 체제 유지 방식이나 국익을 내세운 윤리적 가치의 파괴 등, 정당한 상식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김승옥 소설 속에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4. 혼성모방(pastiche)과 소시민적 삶에 대한 자조

김승옥 소설의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4·19세대 지식인 계층의 낙오자 의식을 지닌 존재들이다. 『차나 한 잔』, 『들놀이』나 『싸게 사들이기』에서 보듯, 이들은 60년대 사회가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으로 숨가쁘게 재편되는 모습을 그 사회의 외부에서 소외된 채 바라본다는 감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⁵⁶⁾ 불과 몇 년 전 이들은 사회변혁의 주체로 불리던 혁명의 적자였으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아갔을 때 사회변혁의 꿈과는 상관없이, 공고화된 계급 체계가 지배하는 사회시스템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는 체념을 이미 먼저 체화하고 있다.

『싸게 사들이기』(1965)의 경우, 더 이상 사회 변혁과 같은 ‘큰’ 가치들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청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이익을 위해 서로 속이고 감추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또 조금은 씩씩하게 그려낸 이야기이다. 주인공 K가 자주 가는 헌책방인 대한서점 주인 곰보는 단골 손님들을 이용하여 안 팔리는 책을 팔려는 계산속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이를 간파하고 있는 K 역시 헌책방 주인을 속이며 몰래 책의 일부분을 떼어내어 곰보가 값을 비싸게 부를 때마다 당당히 가격을 깎는다. K의 대학친구 R은

56) 김건우, 『4·19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낙오자’ 모티프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16호, 한국근대문학회, 2007.10, 167-193면.

사랑한다는 애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곰보네 매춘 여성을 반드시 만나러 간다. 이 소설에 나타난 청년들은 더 이상 사회나 국가의 문제를 고민하는 미래세대의 책임적 주체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개인적 이득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속물적 인간형에 지나지 않는다. K는 “사람은 잘 살고 보아야 한다”는 곰보의 말을 진리로 생각하며, 비싼 장비들을 자랑하듯 들고 다니는 산악반, 하이킹하는 동년배 친구들을 질시하며 바라보는 위치에 서 있다. 물론 K는 잘 사는 동년배 친구들을 부를 과시하러 다니는 속물로 바라보고 경멸하지만, 그러한 생활방식에 대한 동경과 부러움 역시 한 칸에 가지고 있다.

K가 속한 세상의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거창한 희망이나 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따분함’이나 ‘지루함’을 기본적인 정조로 갖고 세상을 바라본다. 가령, 삼십 년 간 같은 대학의 수위로 근무했다하여 대학신문에 실린 수위를 바라보는 K의 시각은 그 따분한 세월을 습관처럼 견뎌온 것에 대한 경멸과 놀라움이다. 또 현책방 주인 곰보도 머릿속은 다른 계산으로 가득찬 채 K와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던 중, 지리학과 출신이며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K의 미래를 듣고 지루할 것이라며 그를 동정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가난한 처지의 대학생 청년인 K가 주머니 속에 있는 이십 원을 영화를 보거나 다방에 들르지 않고 책을 사는데 쓰자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장면, 그 장면 속의 ‘사는 방식’에 대한 세 가지 분류에 대한 이야기는, 속물적 생활방식의 수용과 그 수용에 대한 자조라는 양가적 태도가 동시에 드러나는 발화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K에게 주머니 속 이십 원을 청계극장에 가거나 다방에 가는 것으로 써버리는 것은 ‘바람둥이 손처럼 충동 속에 사는 것’이며, 삼십 년을 수위노릇을 했다고 ‘보람’을 느낀다며 자부심을 갖는 모습은 ‘습관 속에 사는 것’이다. 이들 모두 K에게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이 아니며, 서점에 가서 현책을 사는 것은 “계산하고 계산해서”

사는 것, 또한 “혁명적으로 사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생각해봐라 이 병신아, 곰보 서점에 가면 이십 원으로 문고 판 책 한 권은 거뜬히 살 수 있잖아? 수위 영감처럼 습관 속에서 사는 것도 그렇지만 바람둥이 손처럼 충동 속에서 사는 것도 둘 다 비싸게 친다. 혁명적으로 살아야 한다. 습관도 아니고 단순한 충동도 아니게. 계산하고 계산해서.⁵⁷⁾

그런데 이 제 3의 삶의 방식으로 이야기되는 ‘계산하는 삶’이 ‘혁명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수사와 등가의 것으로 연결되는 수사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이 소설 전반에서 ‘계산’이라는 것은 곰보가 단골 손님을 이용하거나, R이 자신의 애인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매춘 여성을 이용하는 것, 또 K가 자신을 속이려는 곰보를 대상으로 책을 찢어 수를 쓰는 것 등, 각자의 작은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한다는 자조적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일반적 통념으로 볼 때, 이러한 형태의 소시민적, 속물적 ‘계산’은 사회체제를 근본에서부터 바꿔야 한다는 ‘혁명적’이라는 수사와는 대립된 것이다. 그러나 위의 인용문에서 이 두 가지 수사가 등치되면서 ‘혁명적’이라는 용어는 원래의 뜻 이외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 표현이 된다. 계산하는 삶이 ‘혁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이란, 혁명이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두 남들보다 잘 살아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안온해 보이는 생활을 누리는 것만이 지상목표가 된 세상을 외부적 시각에서 풍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표현의 이중성은 ‘혁명’ 담론의 변질이라는 문제를 기반으로 할 때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5·16 이후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차단당하면서, 학생들의 ‘혁명’이 기실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불러오지 못한 한 때의 사건에 그쳤다는 비판

57) 김승옥, 『싸게 사들이기』, 『김승옥소설전집』 1, 문학동네, 2004, 202면.

적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⁵⁸⁾ 4·19 이후 혁신세력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기성세대는 4·19를 철저히 학생들의 ‘피’가 섞인 ‘정변’으로 의미화하고, 4·19 이후 민주당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비판한 이후,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기계문명과 중공업화”와 같은 당면과제를 성취할 강력한 가부장적 지도자의 존재를 정당화하였다.⁵⁹⁾ 가령, 5·16 이후 『사상계』에 발표된, 중앙대 사회학 교수 임성희에 의해 작성된 『혁명의 이론과 실제-쏘로킨과 부린톤의 혁명론을 중심으로』라는 글의 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은 四·一九를 절대로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변, 또는 폭동(riot, revolt)이라고 말한다. 아마 이것은 학생의 의거에 의해서 젊은이의 피로서 이루어진 정변이지 절대로 혁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인류역사란 영웅의 창조물이다. 만일 영웅이라는 어감이 비민주적이라면 小數(minority)에 의해서 민족운명, 국가운명, 세계운명이 좌우된다. 특히 제후진국가는 과거의 봉건주의, 타락사회, 협동사회, 농업사회, 상호부조적 가족주의적, 수공업적 보수사회로부터 능동적, 진취적,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사회로 기계문명과 중공업화 해야 하는 복잡한 계획사회를 목표로 일대전환기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상징적, 국가적 지도자, 세계동태와 조국의 현

58) 일반적 혁명 개념이 ‘전반적인 사회구조, 현실적 가치관의 변전’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논하며, 4·19를 “실의에 찬 반혁명”으로 지칭하는 논의도 이와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 『4·19의 참의미』, (『대학신문』 325호, 1961.4.17.)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마로니에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1면 고경칼럼 25년 1959~1984년』,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6-7면.

59) 물론 『사상계』를 중심으로 한 혁명론을 모두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령 서울대 철학교수 최재희의 경우 『역사철학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글에서 4·19와 5·16의 차이를 혁명세력의 집권여부로 보고, 둘 다 기초가 되는 역사철학이 결여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혁명 이후 나아가야 할 한국사회의 방향을 ‘인간의 인간에 대한 신뢰 회복’ ‘법치적인 사회성을 형성하는 것’ 강력한 반공주의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 최재희, 『역사철학의 새로운 방향』, 『사상계』 1961.12, 114-123면.

실을 정시(正視)하는 선견(先見) 있고 신념 있고 계획 있고 금욕적이고 적어도 통솔력있는 특질적(charismatic) 지도자가 국 가운데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⁶⁰⁾

농업사회를 탈피해 중공업 위주의 자본주의 경쟁사회로 진입해야 한다는 후진국의 성장과제가 “계획 있는” 지도자를 요구한다는 점, 이러한 지도자의 존재로 인해 성취된 사회구조의 변혁이 진정한 혁명이 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혁명 이후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로 귀결된 4·19는 진정한 혁명이 아니라는 구분법을 찾을 수 있다.

결국 강력한 가부장의 존재를 요구하는 담론으로의 수렴 아래, 본래 빛나는 혁명의 주체로 호명된 대학생 청년들은 무기력하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⁶¹⁾ 4·19를 일으킨 학생들의 숭고한 뜻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들이 그 이후에 보이는 데모를 ‘북괴의 침입을 유발할지 모르는 유해한 무질서와 혼란’으로 규정하는 지배 담론 역시 이들이 이미 혁명의 주체가 아닌, 혁명 이후의 사회변화를 외부에서 그저 바라보는 위치에 있어야 할 것을 암묵적으로 주지시키는 발화로 볼 수 있다.⁶²⁾ 암묵적 적을 막고, 못 사는 나라를 잘

60) 임성희, 『혁명의 이론과 실제-쏘로킨과 부린톤의 혁명론을 중심으로』, 『사상계』 1961.11, 288-289면.

61) 『방황하는 대학, 대학생』, 『대학신문』 376호, 1961.11.27.

62) “이렇게 돈과 감투지배에 눈이 어두운 민주당 장정권은 젊은 세대가 이룩해 놓은 4·19의 『혁명』을 반혁명과 혼란으로 이끌어 가고 말았다. 이러한 집권당의 추태를 본 군의 젊은 장교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4·19 때 군은 신속히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했었던 것은 사실이다. 군은 가능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민간인에 의해서 확립될 것을 바랐다. 그러나 사월위기설 속에서 장정권과 민·삼양원은 정쟁의 도가니로 화하고 학생들은 돈으로 무마하여 데모를 막았지만 가두에서는 데모 사태가 연발하여 그 사이에 공산당이 편승하여 우리 군이 고귀한 생명을 바쳐 지켜온 민국이 무너지지나 않는가 하는 위기감으로 줄곧 아슬아슬함을 금할 수가 없었다. 『데모로 세운 나라 데모로 무너진다』는 예감 속에서 우리 군은 드디어 정의의 칼을

살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 곧 ‘진정한 혁명’으로 의미화되는 흐름 속에, 소시민적인 삶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앞서 계산하며 사는 것을 ‘혁명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 놓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대해 포착한 작가의식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변혁의 주체로서의 지식인 계층의 정체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흐름이 되었다는 의식은, 이 소설의 중반부에서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를 짚은 부분 인용하는 방식으로 도 암시된다. K는 헌책의 페이지를 찢어놓으며, 동시에 주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책을 펼쳐서 마구 넘긴다. 이 장면에서 우연히 그의 눈에 들어온 페이지의 내용이 서술된다. 이 책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이며, 그의 눈에 들어온 페이지 내용은 그 내용상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①

토인비의 무시무시한 표현을 빌리면, 그들은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회의 ‘것’은 아닌 무산계급의 사람들이다. 그 진공상태...⁶³⁾

②

이 책의 ‘프롤레타리아’는 주어진 어느 사회, 어느 시기에 존재한 계층 가운데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회 ‘안’에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회적 계층이나 집단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프톨레마이오스나 마리우스 같은 장군의 깃발 아래 모여든 용병들 가운데 신분이 낮은 실

뽑아 분명히 쫓아낼 것이다. 이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기에 이 민족의 번영과 자유를 진정으로 염원하기에 우리 혁명군은 수도서울로 진군한 것이다.”; 박정희, 『우리민족의 나갈 길: 사회재건의 이념』, 동아출판사, 1962, 196-197면.

63) 김승옥, 『짜개 사들이기』, 『김승옥소설전집』 1, 문학동네, 2004, 205면.

업노동자, 망명한 스파르타인 장군인 클레아르코스, 그 외 키루스의 귀족 출신 그리스 용병 대장들까지 ‘프롤레타리아’에 포함된다. 프롤레타리아임을 나타내는 징표는 빈곤이나 비천한 출신이 아니다. 그것의 진정한 징표는 선조 때부터 유전되던 사회적 지위의 상속권을 박탈당했다는 의식과 그런 의식에서 솟아나는 원한이다.⁶⁴⁾

인용문 ①은 『싸게 사들이기』의 해당 부분이며, ②는 토인비의 저작 중 『싸게 사들이기』에 인용된 부분의 원전이다. 토인비는 ‘문명’ 단위로 인류사를 파악할 것을 주장했고, 개별 문명이 ‘발생-성장-쇠퇴-해체’의 과정을 순환적으로 밟아왔다고 논증한다. 새로운 문명은 역경을 이겨낸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며 성장한다. 이 과정에서 역경을 이겨내는 창조적 지도자와 이들을 따른 비창조적 다수집단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들이 억압-피억압의 수직적 관계가 되는 순간, 개별 문명은 쇠퇴의 길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지도집단이 창조성을 잃고 억압을 보이는 순간, 이들은 ‘지배적(dominant) 소수집단’으로 변모하게 된다.⁶⁵⁾ 그리고 해체기에 들어선 문명은 군국주의적 분위기가 지배하게 되며, 수직적 분열(국가 간 전쟁)과 수평적 분열(계급적 분열)을 동시에 겪는다. 수평적 분열의 경우, 창의적 지도력을 상실한 지배적 소수집단(dominant minority), 무능한 지배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전투력을 키우는 사회 내 존재로서의 내부 프롤레타리아 (internal proletariat), 국경 바깥의 야만인들로 무력적 전투를 상습수단으로 삼는 외부 프롤레타리아(external

64) 아놀드 조셉 토인비, 김규태·조종상 옮김, 『역사의 연구』 II, 더스타일, 2012, 58-59면.

65) 토인비는 이 과정을 ‘사회적 미메시스’ 내에서의 억압이라 보고 있다. ‘사회적 미메시스’란 소수의 창조적 지도집단이 다수의 비창조적 집단을 교도하는 훈련 방법인데, 지도자들의 창조성이 상실될 때 억압이 이루어지고 대중은 점차 그들의 자아결정권을 잃게 된다. : 임희완, 『20세기의 역사철학자들』,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147-148면.

proletariat) 로 나뉜다. 66)

김승옥이 인용한 부분은 헬라스 사회의 내부 프롤레타리아 서술 부분이며, 이들이 ‘정당한 상속권을 박탈당한’ 계층임을 명시하는 부분이다. “그들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회의 것’은 아닌 무산계급의 사람들”은 토인비의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정리된 채 슬쩍 장면이 전환된다. 그러나 이 장면을 통해 문명 해체기의 군국주의적 분위기와 지배적 억압,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저항세력의 대립 부분은 각자의 작은 이익을 위해 골몰하며 살아갈 것이 요구되는 세상에서 K나 R과 같은 대학생 청년이 처한 위치와 동일한 것으로 의미화 된다. 이처럼 소설 속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가 펴든 책의 내용상 ‘유사성’을 기반으로 소시민적 삶을 살아가도록 강제하는 60년대 중반의 한국사회의 특징을 의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문맥은 혼성모방(pastiche)를 통해 의미를 생성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패러디와 혼성모방의 차이는 모방의 방향과 차원에 있다. 우선 패러디가 원전에 대한 뚜렷한 대항의식을 전제로 한 기법이며 원전의 의미에 대한 비판적 아이러니의 거리를 확보한 채 풍자를 의도하는 기법이라면, 혼성모방은 기본적으로 비평적 거리가 아닌, 유사성의 모방을 지향한다.⁶⁷⁾ 패러디가 특정 텍스트의 전체적 구조를 염두에 둔다면, 혼성모방은 보다 파편화된 형태로 다양한 원전을 자유롭게 인용하며, 원전에 대한 대타의식뿐만 아니라 단순한 수용과 새로운 의미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⁶⁸⁾

‘혁명’, ‘계산’, ‘창조’와 같은 단어가 지배담론에서의 의미를 문맥

66) 위의 책, 150-151면.

67) 공종구, 『패러디와 패스티쉬 그리고 표절 그 개념적 경계와 차이』, 『국어국문학연구』 19호,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870면.

68) 이승훈, 『패스티쉬의 미학』,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세계사, 1991, 253-254면.

속에 그대로 옮겨오면서 문장 앞뒤의 맥락적 의미를 통해 이 단어에 대해 비판적인 뉘앙스를 동시에 품도록 의도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패러디적 맥락에 가깝다. 그러나 『싸게 사들이기』에서는 K가 책을 펼쳐보면서 ‘우연히’ 눈에 띈 해당 부분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역사의 연구』 속 소외된 지배층을 주인공 청년이 처한 시대상황과 유비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두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인 비판의 의도를 전면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패러디보다는 혼성모방에 가깝다. 내부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과 대학생 청년계층의 처지가 지닌 ‘유사성’이 의미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⁶⁹⁾

즉, 『싸게 사들이기』에서 김승옥은 토인비의 개념을 혼성모방 형식으로 작품 속에 끌어들이면서, 내부 프롤레타리아가 환기하는 소외된 지식인 계층으로서의 대학생의 처지, 더 이상 사회변혁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공고화된 사회질서 속에서 속물적이고 소시민적인 방식으로 일상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대학생 계층에 대한 자조적 의식을 새로운 의미로서 창조해 내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4·19와 뒤이은 5·16을 거치며, 60년대 한국사회는 ‘빈곤 탈출, 경제적 근대화의 달성’이라는 지상과제를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방향

69) 물론, 이 때 혼성모방(pastiche)은 진짜/가짜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문제의식 하에 쓰인 것은 아니다. 단, 혼성모방의 ‘유사성’이나 ‘부분성’이라는 특징을 활용, 김승옥 소설 속에서 혼성 구문의 지위가 그러하듯, 정치적 의식을 전면적인 주제로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그 외부에서 사회의 모순을 기록하는 태도를 취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방법론적으로 활용된 기법으로 이해해 보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으로 변화해 갔다. 부정부패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외침은 자유당 정권 하 만연한 부패를 개탄하며 엄격한 사회질서를 다시 세우고 지긋지긋한 빈곤에서 벗어나 보자는 논의들로 이어졌고, 학생들의 데모를 통제하고 냉전논리를 앞세운 반공주의,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체제 반대세력의 억압 또한 강화되어 갔다. 김승옥 소설은 이처럼 물질적, 경제적 발전을 유일무이한 지상과제로 내세우며 새로운 유형의 억압과 통제가 강화되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다. 또한 김승옥은 이러한 사회적 변모들이 환기시키는 윤리적 가치의 파괴와 감정구조의 변모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라는 문제를 우회적인 방식으로 그의 소설에서 제기하고 있다.

그 위험성이란, 무언가 건설적인 것을 창조해야 한다는 모토의 이면에 있을 수 있는 개성의 말살과 획일화, 보이지 않는 통제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의 '말할 수 있는 권리'의 억압, 공고화된 사회 시스템 외부에 소외된 채로 자신의 일상생활만을 영위해 나가는 것에 익숙해지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김승옥이 거리를 두고 그려내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4·19, 5·16, 반공주의의 강화, 베트남 전쟁 등 사회사적 사건을 넘어서, 60년대를 지배하는 감정구조의 일단을 그려내고자 하나 시도라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일차자료

- 김승옥, 『김승옥 소설전집』, 문학동네, 2004.
- 김승옥, 「자작해설」, 『뜬세상 살기에』, 위즈덤하우스, 2017, 20, 29면.
- 김태길, 「특집 젊은 지성들의 광장-파이오니어로서의 자세」, 『사상계』 1962.4, 98-101면.
- 유영준, 「특집 전진하는 전통사회- 전진에 반항하는 전통적 가치」, 『사상계』, 1962.3, 62-71면.
- 이극찬, 「대학생과 정치적 관심」, 『사상계』 1962.4, 110-117면.
- 임성희, 「혁명의 이론과 실제-쏘로킨과 부린톤의 혁명론을 중심으로」, 『사상계』 1961.11, 288-289면.
- 최재희, 「역사철학의 새로운 향방」, 『사상계』 1961.12, 114-123면.
- 「휴가, 여유, 그리고 창조」, 『대학신문』 349호,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1961.7.10.

2. 단행본

-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천년의 상상, 2012.
- 김명석, 『김승옥 소설의 감수성과 일상성』, 푸른사상, 2004, 36-62면.
- 김옥동, 『은유와 환유』, 민음사, 1999, 244-245/ 263면.
- 김주연, 『김주연 평론문학선』, 문학사상사, 1992, 13-48면.
- 김현, 『사회와 윤리』, 일지사, 1974, 383-402면.
- 박정희, 『우리민족의 나갈 길: 사회제건의 이념』, 동아출판사, 1962, 196-197면.
- 박정희, 『민족의 저력』, 광명출판사, 1971, 269면.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마로니에 :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1면 고정칼럼 25년 1959~1984년』,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139-140/ 394면.
- 유종호, 「감수성의 혁명」,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424-430면.
- 이승훈, 『포스트모더니즘 시론』, 세계사, 1991, 253-254면.

- 임희완, 『20세기의 역사철학자들』, 건국대학교출판부, 2003, 147-151면.
- M. 바흐친, 송기한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언어철학』, 한겨레, 1988, 29-34면/129-136면.
- 미하일 바흐친, 『소설 속의 담론』, 전승희 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111-120면.
- 프레드릭 제임슨, 이경덕·서강목 옮김, 『정치적 무의식』, 민음사, 2015.
- 케리 솔 모슨·캐럴 에머슨, 오문석 외 옮김, 『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545-555면.
- 아놀드 조셉 토인비, 김규태·조종상 옮김, 『역사의 연구』 II, 더스타일, 2012, 58-59면.
- Jamson, Fredric, *The Antinomies of Realism*, London ; New York : Verso, 2015, p.4.

3. 논문

- 공중구, 『패러디와 패스티쉬 그리고 표절 그 개념적 경계와 차이』, 『국어국문학연구』 19호,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861-876면.
- 김건우, 『4·19세대 작가들의 초기 소설에 나타나는 ‘낙오자’ 모티프의 의미』, 『한국근대문학연구』 16호, 한국근대문학회, 2007.10, 167-193면.
- 김동식, 『4.19 세대의 정치적 무의식과 ‘초현실주의’라는 기호(記號)-하길종의 영화와 글쓰기에 관한 몇 개의 주석』, 『대중서사연구』 27집, 대중서사학회, 2012, 77-108면.
- 김영찬, 『1960년대 문학의 정치성을 ‘다시’ 생각한다』, 『상허학보』 40집, 상허학회, 2014, 185-211면.
- 김우성, 『베트남 참전 시기 한국의 전쟁 선전과 보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5, 24-26면.
- 박진영, 『1960년대 지배담론의 수사와 <서울, 1964년 겨울>의 상호텍스트성 연구』, *Jornal of Korean Culture* 27, 2014, 101-120면.
- 백지은, 『김승옥 소설에 나타난 글쓰기 특징-『다산성』(1966)의 문맥 형성과정 고찰』, 『국제어문』 44집, 국제어문학회, 2008, 303-327면.
- 서영채, 『한글세대의 문학 언어의 특징-김승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 59집, 대동문화연구소, 2007, 135-160면.

- 신형기, 「혁신담론과 대중의 위치」, 『현대문학의 연구』 47집, 2012, 263-295면.
-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와 젠더의 재구성」, 『여성문학연구』 39집, 한국어성문학학회, 261-302면.
- 이정숙, 「김승옥 정전의 재구성-배제된 ‘웃음의 서사’, 콩트」, 『한국근대문학연구』 18집, 한국근대문학회, 2008, 101-125면.
- 오길영, 「서사와 유토피아적 충동-제임슨의 서사이론」, 『비평과 이론』 제21권 2호, 한국비평이론학회, 2016, 133-154면.
- 임경순, 「김승옥 소설의 모더니즘적 특성에 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11집,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231-248면.
- 장두영, 「베트남 전쟁 소설론」, 『한국현대문학연구』 25집, 한국현대문학회, 2008, 383-425면.
- 장현숙, 「이상의 글쓰기 방식 수용 양상 연구- 이상, 황순원, 김승옥, 최인호의 서술기법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7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411-443면.
- 차미령, 「김승옥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인자, 「김승옥 소설 문체의 사회시학적 연구」, 『현대소설연구』 10집, 한국현대소설학회, 1999, 359-378면.

<Abstract>

The Polyphony and Political (Un)consciousness in Kim Seong-Ok's Short Stories

Seo, Eun-Hye

The stylistic features of Kim Seung-ok's short stories have been mainly studied in syntactic aspects such as the use of sensual images, the use of associations and metonyms. These studies commonly praise Kim's great ability as a stylist. But except these features in syntactic context, the perspective of social linguistics such as Mikhail Bakhtin, who consider parole as a utterance in everyday life as a language of novel can be applied on demonstrating certain utterances in Kim's several stories. Kim uses the language of Park Jung-hee's regime or the University student who considered agency of 4·19 revolution.

Kim's works such as *Strong Man* (역사) *A Cheap Purchase* (싸게 사들이기), *Seoul, Winter in 1964* (서울, 1964년 겨울), *Prolificacy* (다산성), *The Summer That I Steal* (내가 훔친 여름) *A Night Travelling* (야행) contains various social discourses related to governing discourse emphasizing creating agency, misogyny on resistance against Park's regime, 4·19 revolution, Vietnam War. These social discourses are commonly related to the important social event in 1960s. These discourses have influence on Kim's works, in a way of using the parody, pastiche, metonymy and metaphor in his own context. As a result, Park's regime's discourses sometimes are satired



and caricatured in his works. Like this, reading Kim's stories as a certain utterance of society in 1960s produce rich meaning that never be mentioned before and we can see where the form itself produce certain meaning related to the social background when literary works are published.

Key words: Kim Seong-ok, polyphony, 4·19, utterance, metonymy, parody, pastiche, the Vietnam War, the discourse of modernization, the discourse of revolution, development

투 고 일 : 2018년 6월 5일 심 사 일 : 2018년 6월 7일-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8년 6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8년 6월 26일